

수도권 중심 부동산 시장 회복세 건설사,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주요 건설사 상반기 실적 악화
고금리, 원가율 개선 등 영향
“주택사업 추가비용, 지나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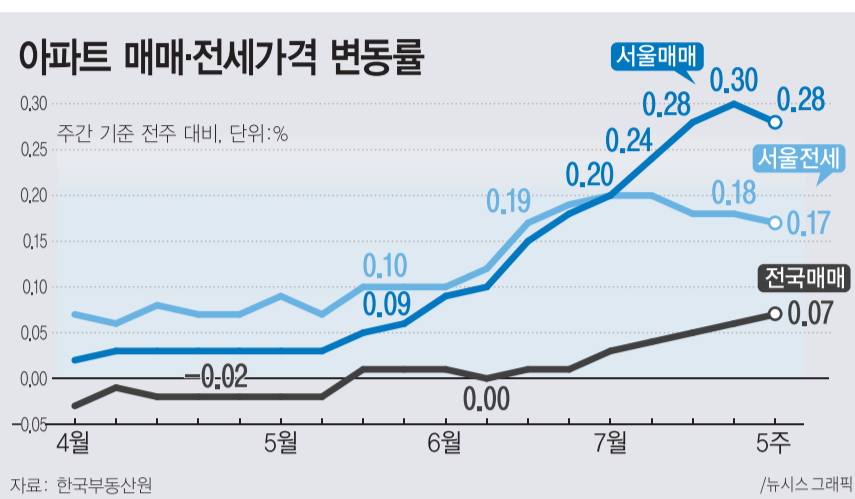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5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2조 3032억원, 영업이익은 1조 495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 17조 1665억원, 영업이익 39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1%, 0.3% 증가했다. 주택부문의 원가 부담 확대와 함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며 선방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 10조 4990억원, 영업이익 6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2%, 3% 증가했다. 매출은 연간 시장 예상치인 17조 9000억원 대비 60% 수준이다.

GS건설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이 6조 36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1642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갑갑사과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원가율 개선도 한 몫을 했다.

대우건설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5조 3088억원, 영업이익이 2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 44.3%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5일 “고금리와 원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1%, 당기순이익률 3.5%로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 3조 9608억원, 영업이익 93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42%나 급감하며 당초 예

상보다 부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자회사인 DL건설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했다”며 “일부 현장들의 원가율 조정과 대손을 반영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아쉬운 실적과, GS건설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의 변수는 모두 ‘주택사업 이익률’이었다”며 “건설업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이었던 국내 주택 사업에서의 추가 비용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닌 지나간 이슈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점차 공급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베일리·메이플자이... 아파트 네이밍 경쟁

“이름만으로 단지 장점, 성격 등 표현”

최근 아파트에 독특한 이름을 붙이는 곳이 크게 늘었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관심을 받아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명과 베일리(Bailey)라는 단어를 결합했다. 베일리는 중세 시대 영주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한다.

GS건설의 ‘메이플자이’는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컨셉트로 정했다.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여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으로 호기심 자극은 물론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과 입지, 성격 등을 표현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2년 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아파트 명칭이 어렵고 복잡해 방문 시 헛갈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을 쓸 때 다 외워서 쓰기 어려워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네이밍 경쟁은 치열해져 지명을 집값이 높은 곳으로 바

꿔 표기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와 ‘신목동 파라곤’은 신월동에 위치함에도 학군지로 유명한 ‘목동’으로 탈바꿈 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대전 서구 ‘둔산 더샵엘리트’도 용문동에 위치하지만 집값이 높은 둔산동을 아파트 이름에 붙였다.

반면 아파트 명칭을 간결하게 지은 곳도 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대전 중구 문화동 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인 ‘문화자이SK뷰’는 산이 바로 앞에 있다. 따라서 ‘포레’ ‘라포레’와 같은 외국어를 넣을지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결하게 지을지 약 3개월 간 조합원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명과 두 개 시공사 브랜드만 넣은 이름이 채택됐다. 아파트 명칭보다 조경과 주변 부대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김희경 8구역 조합장은 “‘센트럴’ 같은 단어를 남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억하기도 어렵고 특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헛갈려한다”며 “요즘은 어디가 좋은지 아는데 굳이 어려운 영어를 넣어 길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카드 News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자동차시장 공략

‘아스터오토’ 합작법인 출범

신한카드가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중고차 판매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와 합작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터오토가 카자흐스탄 전역에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딜러 매장을 26곳과 영업 네트워크 86곳 소속 영업사원 등이다. 고객과의 접점을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카자흐스탄 3대 자동차 딜러사인 ▲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 파이낸스와 아스터오토 합작 법인 출범식 비전 그래피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아스타나 모터스 ▲알루르 ▲오르비스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자동차 대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플랫폼 등에서 기술 협력을 단행한다.

삼성카드, ‘아멕스 블루’ 적립혜택 강화

삼성카드가 ‘아멕스 블루’ 이용객을 위해 해외적립 혜택을 강화했다.

삼성카드는 아멕스 블루 카드의 혜택을 보장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5%로 책정된 멤버십리워드 해외 결제 적립률을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멤버십리워드 월 적립 한도도

한 쇼핑·해외 통합 3만 포인트에서 6만 포인트로 높였다.

카드 혜택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캐시백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아멕스 블루 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30만원 이상 결제 시 4만원을 돌려준다.

비씨카드, ‘페이북’ 홍보영상 제작·공개

비씨카드가 KPGA 김가영 프로와 함께 ‘페이북’ 홍보에 나섰다.

비씨카드는 김가영 프로와 ‘페이북 머니 잘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했다. ▲1편

·페이북 머니 소개 ▲2편·페이북 머니 결제편 ▲3편·페이북 머니 송금 및 충전 순이다. 비씨카드 직원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김 프로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김정산 기자

Sh수협은행, 주중 차기 은행장 모집 일정 결정

강신숙號 수익성 개선 합격점... 연임 여부 촉각

금융권, 강 행장 연임 관측 우세
일각선 새 인물 교체 가능성 제기

강신숙 Sh수협은행장(사진)의 임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 눈길이 쏠린다.

이달 수협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선발을 논의한다. 연임 가능성과 새 인물 등장 가능성이 상존하고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강 행장은 지난 1979년 수협중앙회 입회 후 사업본부장과 상임이사 등 주요 내부 요직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수협은행 최초 여성 행장으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수협은행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지난 2022년 진행된 수협은행장 공개모집에선 5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치른 끝에 강 행장이 최종 선발됐다. ▲은행장 후보자 지원 ▲행장 후보추천위원회 면접 ▲최종 후보자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쳤다.

수협은행은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모집 일정을 결정한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은행장 후보자를 평



가할 행장 후보추천위원 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행추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한다. 5명 중 2명은 수협 중앙회가 선정하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3곳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행추위원은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합·연금연구실장 등 3명으로 추려진다. 3명 모두 현재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은행장에 오르기 위해선 행추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5명 중 4명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강 행장의 연임은 금융권에서도 관심사다. 강 행장 취임 한달 전인 2022년 10월 수협중앙회가 21년 만에 공직자금 7574억원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협은행의 금융지주 전환을 시사하면서 자회사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

금융권에서는 강 행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행장으로 금

유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취임 이후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다. 올 상반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57억원이다. 전년 대비 1% 감소한 회복세다. 지난해 수협은행이 연간 10.9% 성장한 2177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하면 합격점이란 평가다.

강 행장은 업계에서 ‘영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취임 이후에는 신용카드와 외환업무를 강화하면서 비이자의 청구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 2월에는 외환사업 강화를 위해 ‘FX-리더스’를 출범했고 이후 다음달인 3월에는 낚시 애호가를 위한 ‘타씨(樂SEA) 카드’를 출시했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의 금융지주 전환이란 숙원과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연임 사례가 드물어 새 인물 등장 가능성도 제기한다. 역대 수협은행장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장병구 전 수협은행장 단 한 명뿐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장 같은 요직 인사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평가한다”며 “숙원 과제를 앞두고 있지 만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